

2%대 저성장 일상화... 올해도 암울

지난해 실질 GDP 2.7% 성장... 소비 둔화·건설투자 급감·수출 둔화·보호무역 조치 등 악재 산적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2014년 제외) 2%대 저성장이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장동력인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까지 본격적인 위축 국면에 들어가면서 저성장 국면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2.7% 성장하는데 그쳤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4분기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피하며 한은의 지난해 목표치인 2.7%에 턱걸이 했지만, 2015년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당시와 같은 0.4% 성장에 그치며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고 모두 2%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다.

지난해 우리 성장을 붙잡은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민간소비를 들 수 있다. 민간소비(2.4%) 증가율이 연간으로는 전년(2.2%) 대비 다소 높아졌지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세일페스타 등의 소비 진작 정책에 더해 추경을 통해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부은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기업구조조정, 국내 정치불안, 가계부채 급증, 김영란법 등 각종 악재로 광풍 일으킨 소비심리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정규일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민간 소비가 전체 GDP의 49.5%를 차지하는데 3분기 0.5%에서 4분기 0.2%로 둔화된 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3분기 폭염으로 전기소비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 소비가 많았는데 4분기 이에 따른 반사효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채소 및 육류 가격 상승으로 식료품 소비 역시 줄어들어 민간소비를 둔화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라 건설투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우리 경제를 지탱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에 기댄 성장조차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건설투자 증가율은 무려 11.0%에 달했다. 이에 지난해 건설업도 11.0% 성장하며 지난 1991년 이후 26년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내놓은 11·3 대책과 미 금리인상에 따른 대



맛있는 전이 한자리에 25일 서울 중구 봉래동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열린 '설 맞이 요리하다 제수음식 대전'에서 모델들이 제수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28일까지 전·산적·떡·고랑떡 등 '요리하다 상품' 2개 구매시 10%, 3개 이상 구매시 20% 할인 판매한다.

출금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 3분기 3.5%에서 4분기 -1.7%로 급감했다.

정 국장은 "이번 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최근 급격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면서도 "건설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향후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둔화되는 추세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지난해 수출 성장률은 1.4%로 전년(0.8%)보다 높아졌지만,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다. 순수출의 성장기여도 역시 지난해 2분기 -0.3%포인트, 3분기 -0.8%포인트, 4분기 -0.1%포인트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만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까지 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국들의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 수출 차질규모는 지난해 통관수출의 0.5%에 해당하는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

하는 규모다. 또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7~2020년 통관수출의 0.8%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반적인 경기하강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4분기 들어 소비가 감소하고 그간 경기를 떠받쳐온 건설투자도 둔화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전체적으로 구성성분상으로도 어려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악화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으로 총체적인 정책으로 경기상황을 반전시킬 대응이 필요하나 현

재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책당국이 정책추진력을 잃은 상태여서 경기반전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 2018년은 2.8%를 제시했다. 이 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 나이스신용평가는 2.4%, 현대경제연구원 2.3%, LG경제연구원 2.2%, 한국경제연구원 2.1%를 제시하고 있다.

한은과 연구기관들의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4년 연속 2%대 성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뉴시스

'설 연휴에 유익한 금융정보'

신권교환, 은행 이동점포 차량 고장,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교대 운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설 연휴 부모나 조카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주요 역사나 공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마련한 은행권의 점포를 이용하면 유용하다.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을 모는 교대 운전이 대비하고 싶다면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했다.

바쁜 업무 탓에 미리 선권을 교환하지 못한 소비자라면 은행권의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해보자.

대부분의 은행이 추석연휴 중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점포에서는 신권교환 뿐만 아니라 간단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신한·우리 등 9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 신권교환,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점포도 마련했다.

국민은 고속철도(KTX) 광명역 1번 출구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기흥휴게소, 우리는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 여주휴게소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송산

포도휴게소, 신한은 서해안고속도로(하행선) 화성휴게소에서 운영한다. KEB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양재 만남의 광장, 농협은 경부고속도로(하행선) 망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 드림휴게소에 준비했다.

은행별 이동점포 운영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핀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고장 등에 대비한 '긴급출동서비스'도 눈여겨볼 만하다.

명절 연휴에는 장시간 운전하다 보니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 나는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설 견인차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민약 긴급출동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국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시설 견인차 이용 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대 운전전에 유익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상품도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뉴시스

자동차업계, 설연휴 특별무상점검 실시

고속도로 상행 휴게소 26~27일·하행 휴게소 28~2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를 맞이해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 동안 '자동차 특별무상점검 서비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참여하며, 전국 22개 고속도로 휴게소 내 48개 서비스코너를 설치해 진행한다.

운영시간은 상행 휴게소의 경우 26~27일, 하행 휴게소는 28~29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기아차는 상행 휴게소는 26~28일, 하행 휴게소는 29일 운영한다.

현대차는 ▲경부선 경산(상행), 평사(하행) ▲중부내륙선 충주(양방향) ▲영동선 여주(하행·4일간) ▲남해선 함안(양방향) ▲중앙선 치악(양방향) ▲통영대전선 덕유산(양방향) ▲서해안선 서산(양방향)에 서비스코너를 마련한다.

기아차는 ▲경부선 기흥(하행·4일

간), 죽암(상행·4일간), 칠곡(양방향) ▲호남선 백양사(양방향) ▲중앙선 치악(하행·4일간) ▲서해안선 화성(하행·4일간), 군산(양방향)에 서비스코너를 운영한다.

한국지엠은 ▲경부선 죽암(양방향) ▲영동선 평창(양방향) ▲중앙선 치악(양방향) ▲서해안선 서산(양방향)에, 르노삼성은 ▲경부선 천안삼거리(상행), 천안(하행) ▲영동선 문막(양방향) ▲남해선 함안(양방향) ▲서해안선 화성(양방향)에 각각 서비스코너를 설치한다.

쌍용차는 ▲경부선 안성(양방향) ▲호남선 정음(양방향) ▲중부선 음성(양방향) ▲영동선 여주(하행·4일간) ▲남해선 진영(양방향)에 서비스코너를 진행한다.

서비스 내용은 소모성 부품은 점검 후 필요시 무상으로 교환해주고, 인근 지역 고장차량에 대한 긴급출동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뉴시스

간편·일반심사보험, 비교·설명해야

금감원, 의무화 방안 시행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보장내용 등을 비교·설명하는 것을 의무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은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흔히 '간편가입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질병종류에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

비를 보장하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6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의 고지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통원·투약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면제하고 있다. 대신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1~2배 비싼 건강한 사람이 들면 손해다.

기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건강한 사람으로 추정)한 후 간편심사보험을 다시 가입하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도 건강여부 재조사 등을 통해 간편심사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재확인토록 업무절차를 손질했다. /뉴시스